

사회적 관계 회복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광주시, 따뜻한 공동체 ‘2024년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공모전 수상작·제공기관 및 공동체 공간협업 사례 등 소개

광주시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관련해 ‘2024년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광주시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그 뜨거운 실천 일기’를 펴내고 2024 광주다움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과 구별 우수사례, 제공기관 및 공동체 공간 협업 사례를 소개하는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걸어온 길을 담았다.

책에는 기적같은 변화를 확인하고 삶의 의지를 찾은 이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겼다.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제공기관,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마을밥카페 등 기관들의 마을 중심 활동 사례와 경찰청, 교육청, 군내 이비스와 협업해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 광주만의 활동도 살펴볼 수 있다.

A씨는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느라 건강이 악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며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로 일상이 무너졌다. 지난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다리가 골절돼 병원 신세를 지고, 월세가 연체돼 명도소송 당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상담을 받고 이웃돌봄 지원비 등을 받았고 일대일 매칭을 통해 위생 상태 개선, 정기 반찬, 식품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알콜치료를 위한 관리와 ‘이웃돌봄단’ 대상자로 선정돼 우울증과 고독사 예방 관리도 받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1인 장년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은 A씨는 “눈을 감으면 자꾸 아내가 떠올라 슬을 마셨지만, 이제는 슬픔에 빠지지 기보다는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식사, 빨래, 세면 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환경에 고립된 채 살던 대상자들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은 경우도 많았다. 서로가 안부를 살피고 공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대상자들은 삶이 변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호(80·가명)씨는 “빨래를 못해서 사람들을 못 만났는데 빨래할 곳이 생겨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정연수(59·가명)씨는 “따뜻한 밥 한끼를 이웃들과 함께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며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과 자살충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은 B씨는 퇴행성관절염, 당뇨, 고혈압 진단, 결핵 진단 이력이 있었다. B씨는 부축이 있어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재가 복지센터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B씨는 LH 도배사업, 어울림사랑 나눔봉사의 청소 등으로 깔끔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고, 주2회 반찬 배달, 맞춤형 당뇨식 제공, 침구류, 전기밥솥, 쌀 등을 지원받았다. B씨는 “주거 환경이 좋아져 참 감사하고 웃을 일이 생겼다”고

만족했다.

김지영 북구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의 첫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내 인생도 달라지고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여러 사례 중 ‘한 사람의 인생 마라톤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서구 이혜미),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공동체 관계 돌봄의 초석이 되다’ (정승열 동구 통합돌봄과)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뿌듯함’ (북구 일곡동 김지영), ‘고맙고 사랑해. 딸보다 아내가 더 좋아’ (이윤경 라라팩토리 대표)가 최우수상을, ‘황금 보자기에 펼쳐진 미래의 꿈’ (권미진 서구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 ‘출고 어두운 방에 비춰진 작은 빛’ (김은희 남구 방림2동),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가장, 통합돌봄으로 위기를 넘겨’ (국승희 북구 양산동 맞춤형복지팀),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끌어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김아현 광주시사회서비스원안심돌봄센터 사회복지사)이 우수상으로 뽑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광주정신을 계승한 정책”이라며 “복지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 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시행을 대비하며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부터 광주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돌봄시민의 가정에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우는 서비스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최초의 돌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역할을 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올해부터는 의료돌봄 분야를 추가, 진행 중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주최한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최대 규모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구,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역민 문화쉼터로

올해 공모사업 추진...14일까지 접수 프로그램 운영비·도서구입비 등 지원

광주시 동구가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틀인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힘쓴다.

동구는 8일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2025년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위치한 작은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도서 구입비 등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동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텀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

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도서관은 5월부터 개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자 역량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사립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간담회 등 정보공유 및 소통기회 확대 ▲사립 작은 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시행 ▲동구 도서관 누리집 개선 및 고도화 ▲맞춤형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강좌 확대 등이 있다. 사업이 종료되면 12월 중 성과 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체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 등에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소규모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민의 문화 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달 14마리 중 9마리 하천 주변서 ‘로드킬’

광주환경운동연합, 하천 생태계 지표종 수달 보호활동 나서

광주지역 하천 생태계의 지표종인 수달(사진)이 로드킬로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사한 수달 14마리 가운데 9마리가 하천 주변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했다.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달 구조 접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신웅동 도로변에서 숨진 수달이 발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서구 매월동에서도 로드킬로 추정되는 폐사체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남구 양림동, 2020년 8월 서구 유촌동과 광산구 운남동에서 각각 교통사고로 수달이 죽었다.

2019년에는 11월 광산구 지평동, 10월에는 광산구 우산동과 오산동,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서

수달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신안군 흑산면에서 6개월 된 새끼 수달이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종이다. 그러나 도심 하천 인근 주변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인공 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달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식지 실태 조사와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위험 지점을 파악하는 등 로드킬 예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최종욱 광주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수달은 사계절 내내 활동하며 하루에 10km를 돌아



다닐 정도로 이동성이 크다. 또 밤에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로드킬에 특히 취약하다”며 “인간 중심으로만 설계된 도심 구조가 생태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대 청년 10명으로 구성된 ‘수비수달 서포터즈’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하천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구, 틈새돌봄·육아 품앗이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

8개 단체에 총 1500만원 지원

광주시 서구가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8개 단체를 지원한다.

서구는 가족들의 자녀 돌봄 참여를 돕고 마을단위의 틈새돌봄, 육아 품앗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유휴공간이나 작은도서관, 마을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해 보호 학습과 놀이, 급·간식 등을 지원한다. 단체당 150만원~25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을 받게 된다.

돌봄 분야와 안전 분야에서 각각 6개, 2개 단체를 선정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빠들의 육아모임 예쁨(농성1동), 파더나(상무1동)를 비롯해 마을단위 공동체 놀만치, 차오름(지평동), 소꿉놀이작은도서관(금호1동), 다문화가족 육아공동체 다육이(농성2동) 등이 지원을 받는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장단협의회(상무1동)와 안전마을지킴이단(화정1동)이 선정됐다. 이들은 여성 청소년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여성 전입자에게 안전 꾸러미를 전달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남구, 도심 하천 수질 점검

광주시 남구가 도심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 점검에 나섰다.

남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대천천과 수춘천 일대 5개 지점을 대상으로 2분기 하천 수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포함한 총 6개 항목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며, 분석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는다.

수질 검사는 하천의 수질 변화와 오염도를 평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